

가평 "29,500원" 관광레저권역 토지매각



현대영농조합은 2008년 리조트가 들어서는 가평군 하면의 토지를 특별매각 한다. 신청금 입금후 필지를 배정받고 본사방문 또는 현장답사 후 계약을 하면된다. (노컷기사 보도자료) 문의:02-511-0981 본사관리부 홈페이지(www.hd3651.com)

>> 작전회의?



한승수(오른쪽) 총리와 유명한 외교통상부장관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시작 전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拙俗狹商 驛賈技, 破誥抹理 大運遐

<졸속협상 소고기>

<파고말리 대운하>

블로거 뉴스

시국풍자 사자성어 확산

요즘 인터넷에선 각종 풍자 글이 춤추고 있다. 쇠고기 사태 등 어수선한 시국 흐름을 반영하는 듯하다. 이번에는 사자성어로 현 시국을 매섭게 꼬집은 한편의 시조가 여기저기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다. 이름하여 '절대평범지구정상인의 열음집'. 국내 한 블로거가 현 상황에 대한 개인의 상념을 담아 낸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을 자신의 블로그 등으로 부지런히 퍼나르고 있는 네티즌들은 그 내용에 대해 '2MB에 대한 불만을 함축한 듯하다'고 적고 있다. 다음은 풍자 글의 일부.

拙俗狹商 驛賈技(졸속협상

소고기)=졸렬한 속인이 좁은 헤아림으로 장사하는 재주를 떠들어대네

破誥抹理 大運遐(파고말리 대운하)=경계함을 파하고 도리를 지워버리니 큰 운수는 멀어지는구나

濶會自理 可保伍(집회자리 가보오)=물 끓듯한 집회는 스스로 다스려지니 가히 보호할 만한 대오라오

末漫何免 失數搖(말만하면 실수요)=마침내 넘쳤으니 어찌 면할까 재 운수를 잃고 흔들거리며

卞命何吉 汚解也(변명하길 오해야)=성급히 명명하니 어찌 길할까 추잡한 해결책이로다

暴歷盡壓 歌恨歌(폭력진압 가한가)=모진 시대에 억압함을 마지않으니 한스러이 노래를 부른다.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법



취임 100일을 즈음한 이명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19%~23% 사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중 최저 지지도가 18%대였으니 자칫 신기록 수립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도 추락은 한국 시민 사회의 변화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1세기의 대중의 변화를 '다중(多衆)'으로 흔히 설명한다. 정치적 목표와 지향이 분명하지 않으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뭉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새로운 대중, 멀티플이라고 해서 '다중'이라 부른다. 초기 청소년 주축의 촛불 집회에서 나타났던 활기 넘치고 약간의 즐기는 듯한 분위기와 모인 사람들의 느슨한 결합은 전형적인 다중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 퇴진까지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민불복종과 정치적 저항의 양상은 다중이 아닌 '민중(民衆)'에 가깝다.

정치적 목표가 재협상을 넘어 탄핵, 퇴진 등으로 반정권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고 모여든 사람들의 결합도 끈기 있고 강해진다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역량을 갖춰가고 있다. 이것은 4·19 혁명, 유신독재 반대 투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87년 민주항쟁을 거치며 우

진하던 노동계가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을 통해 조직 정비와 세력 확장에 나서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행정거부운동까지 선언했다. 소극적이던 한국노총까지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쇠고기 수입 반대는 이제 농민, 노동자, 대학생, 중고생, 지식인, 정치권의 야당, 심지어는 해외동포까지 아우르며 엄청나게 넓은 전선을 구축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근성, 독선적 정책 추진, 시민에 대한 무력진압이 이들 서로 다른 계층과 세력을 융합시키는 접착제 내지는 촉매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다. 따지고 보면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는 국가적 난제도 과제도 아니다. 그것은 한나라당의 난제일 뿐 국가적으로는 미국 정부를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내 수입쇠고기에 대한 안전보장을 더 철저히 하는 것. 그것만이 과제이고 정부는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촛불은 국민 스스로 거둘 것이다.

<CBS보도국 대기자>

정부가 미국 정부를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내 수입쇠고기에 대한 안전보장을 더 철저히 한다면 촛불은 국민 스스로 거둘 것이다

리 시민사회에 체득되고 내재되어 온 민중적 저항이 다시 등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중으로 모인 사람들을 변명과 돌려대기, 물대포 진압의 악수(惡手)를 연거푸 두면서 이명박 정부가 '민중으로의 질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일부 대학은 총학생회가 직접 나서 학생들을 움직였고 지지부

홍준표 '돌파형 리더십' 빛났다

냉철한 사태파악 의원총회에서 '재협상' 강성발언 당·정·청 실무협의 조율 정부의 자세변화 이끌어

정부가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 관보 게재를 유보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철회를 미국측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쇠고기 파동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데는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역할이 결정적이었고, 홍준표(사진) 신임 원내대표 특유의 '돌파형 리더십'이 일정 부분 기여한 작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관보 게재를 하루 앞둔 2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재협상 밖에는 길이 없다", "관보 게재를 연기해야 한다"는 강성 발언들이 잇따랐다. 홍 원내대표가 만든 장에서 여당 의원들은 장관고시 게재유보와 재협상이라는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정부와는 달리 당에서는 쇠고기 문제로 촉발된 민심 이반 사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위기를 감지했고, 신임 원내지도부는 이같은 분위기를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날 오후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집권 여당의 이름으로 농림수



산식품부에 관보 게재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고, 결국 인쇄까지 마친 관보의 제본 중지를 이끌어냈다.

원내대표단은 또 쇠고기 파동의 핵심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문제'라고 판단, 당정 실무협의 라

인을 통해 철회 방안을 면밀하게 협의한 뒤 3일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 '재협상 등 미국측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이끌어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정청 실무협의에서 먼저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한 뒤 고위당정회의에서 정부가 당이 제안한 해결 방안을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새롭게 정비한 '당·정·청 시스템'이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사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쇠고기 문제에서 소극적 대처로 일관했다. 그러다 지난달 29일 장관고시 강행 방침 이후 촛불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비난 여론까지 들끓었다. 그 이튿날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간 홍 원내대표는 "국민들과 싸우려 해서는 안되고 항복해야 한다"며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고, 이후 당·정·청 물밑 대화를 통해 정부의 자세변화를 압박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문제와 직면했을 때 돌러가기보다는 정면돌파로 승부를 내는 홍준표의 리더십이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도성해 기자 holysea69@cbs.co.kr

건대역 남성확대술
음경확대 + 길이연장 + 귀두확대 + 조루치료 (포경 + 정관수술) 동시 복합 가능

- 미세 자가 세포 이식술
- 대체진피(라이오플란트, 슈어담)이식술
- 수술 없이 주사로 5분 확대술(필레인, 인터폴)
- 이물질 제거수술(바세린, 파라핀, 실리콘)
- 각종 보형물 수술(링, 발기부전 보형물)
- 복부 지방 흡입술

* 본인의 체형에 가장 적합한 시술 방법을 선택해 권해드립니다. (일요일 공휴일 야간 예약수술 가능)

제니바의원 남성 클리닉 02)461-5142~3
지하철 2, 7호선 건대역 6번출구 직진 30M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인증필 제070611-종-1232호